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V
—樂工服을 中心으로—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Costumes of the Entertainers of
the Three Kingdoms in *Sam-Guk-Sa-Ki* (三國史記)

Jin 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V. 百濟 樂工服
I. 緒 論	V. 結 論
II. 新羅 樂工服	參考文獻
III. 高句麗 樂工服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ostumes of musicians and dancers of the Three Kingdoms recorded in *Sam Kuk Sa Ki* (三國史記).

Costume names of musicians and dancers of Silla, Koguryo and Backje were traced and examined for this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Head gears of entertainers of the Three Kingdoms we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2. Wide sleeved robes were worn by the entertainers of the Three Kingdoms: however, entertainers of Silla and dancers of Backje wore purple robes whereas entertainers of Koguryo wore yellow robes.
3. Belts of the entertainers of Silla wore belts, made of red leather and decorated with gilt ornaments while the entertainers of Koguryo wore belts made of purple *ra*.
4. Entertainers of both Silla and Koguryo wore black leather boots where as dancers of Backje wore leather shoes.

I. 緒 論

三國史記에 新羅, 高句麗, 百濟의 樂工服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 三國 樂工服의 구조나 또는 특징, 차이점, 동질성 등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三國의 樂工服에서 共通點과 차이점이 있었던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三國史記에 보이는 新羅, 高句麗, 百濟의 樂工服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품목별로 검토하여 보고 三國의 樂工服으로는 무엇들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三國史記 卷第 33, 雜志 第 1 樂에서 新羅 樂工服을 먼저 보고 난 후 이것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다. 다음에는 高句麗 樂工服, 百濟 樂工服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여 나가고자 한다.

新羅의 樂工을 모두 尺이라고 하였다¹⁾.

樂工은 新羅時代 音樂署에서 노래, 춤,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을 말하는데 一名 工, 工人, 樂人, 樂生이라고도 한다. 新羅時代에는 笳尺, 舞尺, 琴尺, 歌尺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舞에는 笳舞, 上辛熱舞, 下辛熱舞, 思內舞, 韓伎舞, 小京舞, 美知舞 등이 있었다.

II. 新羅 樂工服

- 新羅樂, 三竹, 三絃, 拍板, 大鼓, 歌舞 二人, 放角幘頭, 紫大袖 公欄 紅鞞, 鍍金, 鈔腰帶, 烏皮靴.
- 哀莊王八年奏樂, 始奏思內琴, 舞尺 四人 青衣, 琴尺 一人 赤衣, 歌尺 五人 彩衣, 纒扇並金纒帶, 次奏碓琴舞, 舞尺 赤衣, 琴尺 青衣, 如此而已, 則不可言其詳也. 羅時樂工皆謂尺.²⁾

新羅의 樂工服을 보면 歌舞인이 착용한 放角幘頭, 公欄紅鞞 鈔腰帶 烏皮靴는 唐時代의 男子服飾品目과 같다.

1. 幘 頭

幘頭는 唐時代 男子의 가장 보편적이고 代表的인 머리쓰개였다. 興德王 服飾 禁制에 의거하면 新羅의 모든 男子冠帽가 幘頭였었다. 幘頭를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에 계급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幘頭의 形態에 신분계급적 차이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唐代의 視覺 資料에 의하면 幘頭의 모양이나 소위 角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放角이란 뜻은 角을 없앤 복두란 뜻인지 또는 角이 흐트러지게 그냥 둔 모양의 복두란 뜻인지 또는 大角幘頭란 뜻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2. 公 欄

紫大袖 公欄이라 있어 公欄의 色彩와 소매의 모양을 알 수 있다. 公欄은 欄衫이란 衫의 아랫단에 橫欄을 붙인 圓領衫을 일컫는다. 唐時代의 視覺 資料에서 大袖와 窄袖欄衫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大袖 公欄이라고 說明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唐나라에서 紫色 綾羅袍는 親王 及 三品 以上の 사람 常服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색이었다.

紫色袍는 신라 聖德王 29년(730 A.D.) 2월에 王族인 志滿이 唐에 갔을 때 唐 玄宗이 志滿에게 大僕卿의 벼슬을 주고 絹一百匹과 紫袍, 綿袖帶를 주었다. 또한 同王 3년(733 A.D.) 2월에 王姪 志廉을 唐에 보내어 謝恩하였는데 唐玄宗이 聖德王에게 보낸 물품 가운데도 紫羅纒袍가 들어 있었던 것을 보아서도 紫色袍는 대단히 귀한 색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腰 帶

腰帶라는 말은 三國史記 色服 男子 服飾에도 나타나며 階級과 品階에 따라서 腰帶의 材料가 나타나는데 主로 玉, 犀, 銀, 鐵, 銅 등만 나타나고 帶 本體의 材料는 나타나지 않아서 新羅 男子의 腰帶 本體의 색이나 材料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는데 新羅 樂舞人의 紫大袖 公欄紅鞞 鍍金 鈔腰帶라고 보이는 기록으로 腰帶의 本體는 皮帶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皮帶도 舞人의 것은 紅色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色服 興德王 服飾 禁制에 보이는 男

1) 三國史記 卷第 32 雜志 第一樂, 羅時樂工皆謂尺.

2) 上書, *Ibid.*

子腰帶에 대해서 더 자세히論하겠지만 앞에서言及된 舞人의 紅鞞 鍍金鈔 腰帶란 기록과 唐時代의 記錄으로서 興德王 服飾 禁制에 보이는 男子 腰帶의 材料들은 帶鈔의 材料라는 것이 確認된다.

即 事物紀原集類 腰帶條를 보면 다음과 같다.

實錄曰 自古皆有革帶及 插垂頭 至秦二世始名 腰帶 唐高祖 今向 下插垂頭取順下之義名 鈔尾 上元元年自三品官至庶人 各有等制以金玉犀銀鍍鈔銅鐵爲飾 自十三鈔至六鈔.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唐代의 腰帶는 上元元년에 三品官에서 庶人에 이르기까지 等級을 두고 金玉犀 銀鍍鈔銅鐵을 가지고 13鈔로부터 6鈔까지 장식하도록 법을 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唐代 男子 腰帶의 帶鈔의 材料는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新羅 男子 腰帶의 材料와 거의 같은 것들임을 발견하게 된다.

腰帶란 명칭조차도 秦二世가 처음으로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한다. 唐代 鞞의 色彩는 대다수는 黑色이었었고, 紅鞞은 唐末 내지 五代初에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³⁾.

唐代에 紅鞞을 사용했던 예는 張萱의 虢國夫人 遊春圖의 唐代 婦人의 圓領袍의 帶에서 잘 볼 수 있다.

4. 衣

哀莊王 八年의 기록에 의하면 舞尺, 琴尺, 歌尺의 服色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냥 青衣, 赤衣, 彩衣 등으로 기록된 옷들은 袍 종류의 옷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5. 繡 扇

이 繡扇이란 것은 舞尺이나 歌尺이 들었겠지만 琴尺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6. 金 鍍 帶

金線으로 장식한 帶로서 이것도 歌尺 五人의 彩衣에만 사용하였던 것인지 또는 舞尺, 琴尺, 歌尺이 다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青衣,

赤衣, 彩衣에는 모두 帶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Ⅲ. 高 句 麗 樂 工 服

高句麗 樂工人과 舞人 服飾은 三國史記 祭祀樂에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高句麗樂. 通典云, 樂工人紫羅帽, 飾以鳥羽, 黃大袖, 紫羅帶, 大口袴, 赤皮鞋, 五色繡繩, 舞者四人, 椎髻 於後, 以絳抹額, 飾以金璫, 二人 黃裙襦, 赤黃袴, 二人赤黃裙襦袴, 極長其袖烏皮鞋⁴⁾.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자세하지 않지만 高句麗의 樂工人과 舞人 服飾은 상당히 달랐었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樂工人과 舞人 服飾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樂 工 人 的 服 飾

- 1) 烏羽飾 紫羅帽
- 2) 黃大袖
- 3) 紫羅帶
- 4) 大口袴
- 5) 赤皮鞋
- 6) 五色繡繩

2. 舞 人 服 飾

- 1) 椎髻
- 2) 絳抹額
- 3) 金璫
- 4) 衣服
 - (1) 黃裙 長袖襦, 赤黃袴
 - (2) 赤黃裙 長袖襦 袴
- 5) 烏皮鞋

자세하지는 않으나 通典의 高句麗 樂工人의 服飾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高句麗의 樂工人의 지위는 上流階級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高句麗 樂工人의 紫羅帽가 어떤 形態의 것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高句麗에서 紫羅는 貴者의 冠에 사용되었으므로 帽의 재료로 紫羅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樂工人이 貴者에 속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 紫羅帽에다 烏羽飾을 했다는 것도 貴者의 표시에 속하였었다는 증거이다.

3)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1983, p.189.

4) 三國史記 卷第 33, 雜誌 第 1, 祭祀樂樂.

大袖란 옷도 貴者의 衣服인 것이다. 大袖는 큰 소매란 의미도 있지만 옷 이름이기도 하다. 여기서 옷 이름이다.

大袖란 옷은 옷 이름 부터 中國에서 由來된 것인데 大袖는 禮服이며 이 말의 의미와 같이 소매가 큰 옷이다.

大袖란 옷에 대해서는 中國문헌에는 女子 衣服名으로 說明되고 있지만 大袖란 衣服이 반드시 女子에게만 국한된 衣服은 아니었다. 그 一例는 아래에서 볼 수 있었다.

大袞은 大袖인 것이다. 卽 大袖는 大袖袍(衫)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黃袍는 隋의 天子와 貴臣의 常服으로 사용되었는데 當初에도 隋의 인습을 따라서 天子가 黃袍와 衫을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高句麗에서는 樂工人의 옷옷이 黃大袖였다.

唐書 車服志에

武弁者 武官朝參 殿庭 武舞郎 堂下鼓吹按工之服也. 有平幘, 武舞絳絲布大袞, 白練襜褕. 膾蛇, 起梁帶 約文大口袴, 烏皮鞞 鼓人朱褙衣, 革帶, 烏皮履, 鼓吹按工加白練 襜褕.

高句麗 舞者의 服飾은 椎髻 絳抹額 金瑠 裙 襜褕 袴 烏皮鞞였던 것인데 여기에서는 椎髻, 絳抹額, 金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椎髻

椎髻는 椎紒, 椎結, 魁結이라고도 쓰이는데 椎(방망이)形 髻를 일컫는다. 通典에서 高句麗 舞者의 머리모양을 椎髻於後라고 說明하였는데, 椎髻, 椎紒란 말의 意味자체에 髻를 뒤를 향하여 結髮한 髻라고 들어 있다. 古代 中國人들은 椎髻를 蠻夷髮結之形이라고 하였으나 그들도 椎結을 하였었다.

「漢書, 西南夷傳」此皆椎結, 耕田 有邑聚.

椎結은 「說苑, 善說」西戎左衽而椎結.

「漢書 李陵傳」兩人胡服椎結. 「漢書, 陸賈傳, 尉佗魁結箕踞見賈注」服虔曰, 箕音椎, 今兵士椎頭髻也.

(2) 抹額

抹額은 帕(말)額, 抹頭, 帕頭라고도 쓴다. 抹額은 額巾이다. 「廣韻」에 帕, 帕額, 首飾이라고 있다. 抹額은 中國古代 服飾에 나타난다. 秦始皇 時代에 紅抹額이 甲卒⁵⁾과 武將의 首服으로 사용되었다.⁶⁾ 紅抹額은 또한 唐 時代에도 사용되었다.⁷⁾

高句麗 舞者의 首飾으로 나타나는 絳抹額은 中國의 絳抹額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3) 金瑠

瑠은 華飾으로 冠前에 붙이는 冠飾과 耳飾 卽 耳珠의 뜻이 있다. 따라서 金瑠도 金耳璣란 뜻과 冠飾의 뜻이 있는데 後漢時代의 宦官의 冠飾을 일컫는다.

「後漢書 輿服志」에 侍中中常侍, 加黃金瑠, 附蟬爲文, 貂尾爲飾 謂之趙惠文冠.

高句麗 舞者의 金瑠이 金耳璣였는지 金冠飾이었는지 確實히 알 수 없다. 樂工人의 紫羅帽을 鳥羽로 장식하였던 것과 같이 舞者의 紅抹額은 金瑠으로 장식하였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金瑠을 귀걸이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타당할 것 같다.

흥미롭게도 高句麗 樂工人과 舞者의 冠飾으로 나타나는 鳥羽와 金瑠은 後漢時代 臣官의 冠飾인 黃金瑠과 貂毛飾과 거의 同一하기 때문이다. 後漢宦官의 冠飾에는 貂尾가 사용되었고, 漢代 武官의 冠에는 鷩羽로 장식한 鷩冠이 있었다.

(4) 長袖襦

舞者의 옷 소매가 긴 것은 高句麗 舞俑塚 벽화에서도 잘 알 수 있다. 舞者의 長袖는 中國 古代 부터 있어온 풍습이다. 戰國時代와 漢代의 여러 視覺資料에서 長袖의 舞者를 흔히 볼 수 있다. 高句麗 舞者의 長袖襦와 長袖衣는 中國의 영향을 받은 풍습으로 해석된다.

(5) 裙袴

舞者의 服飾은 高句麗 舞俑塚 벽화의 舞俑 장

5) 事物紀原 戎容兵械部, 抹額.

6) 「後漢書 輿服志」, 秦雄諸侯, 乃其武將首飾爲絳帕, 以表貴賤.

7) 「唐書, 婁師德傳」, 乃自奮戴 紅抹額來應詔.

면에서 男女의 服飾을 볼 수 있다. 이 벽화 무용인물들의 복식이 通典의 기록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裙襦袴와 長袖의 기록은 일치하고 그 외의 기록은 일치하지 않는다.

襦와 거의 같은 형식의 長襦도 女子 舞者二人이 입고 있으며 이 두 女人이 신고 있는 신만 靺靱인데 烏皮靴가 아니고 素色으로 보이며 앞에 있는 男子와 뒤의 二人은 素皮鞋를 신고 있다.

제일 앞에 있는 舞者의 冠은 烏羽飾冠이고 抹額은 아니다.

IV. 百濟 樂工服

○百濟樂. 通典云, 百濟樂, ……., 舞者二人, 紫大袖裙襦, 章甫冠皮履.

通典의 百濟 樂工服에 대하여는 舞者의 服飾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1. 章甫冠

百濟 舞者의 冠으로 기록된 章甫冠이란 이름은 分明히 中國의 古代 冠名이다. 章甫는 殷代의 冠名인데 百濟의 舞者冠名으로 나타나는 章甫冠이 殷代의 章甫冠과 그 모양이 얼마나 비슷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章甫冠은 後代에도 우리 나라에 그 제도가 남아 있어서 朝鮮時代에도 有官者들이 常服에 사용하였다.⁸⁾

2. 大 袖

여기에서 大袖는 衣服 이름이다.

3. 裙 襦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紫大袖는 新羅 歌舞人의 衣服이었었고 또한 百濟 舞者의 衣服이기도 하였다. 裙襦는 高句麗 舞者의 衣服과 같으나 百濟 舞者의 衣服에는 高句麗 舞者의 衣服에 포함되어 있는袴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百濟의 舞者가 裙안에 袴를 입지 않았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4. 皮 履

皮履는 高句麗 舞俑塚 벽화 舞者의 신발로 나

타난다.

그러나 新羅 歌舞人, 高句麗의 舞人은 烏皮靴를 신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V. 結 論

新羅, 高句麗, 百濟 三國의 樂工服과 舞人 服飾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다.

이 三國 樂工服의 차이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新羅 歌舞人의 머리쓰개는 幘頭였다. 高句麗 樂工人의 머리쓰개는 烏羽飾 紫羅帽였고, 舞者는 抹額을 썼다. 百濟의 舞者는 章甫冠을 썼다.
2. 新羅 歌舞人和 百濟 舞者의 衣服은 紫大袖였고, 高句麗 樂工人의 衣服은 黃大袖로서 세나라 樂工人의 衣服은 大袖였으나 新羅와 百濟는 紫色으로 同色이고 高句麗는 黃色으로 差異는 衣色에 있었다.
3. 新羅 樂工人의 帶는 紅靸 鍍金鈿帶였고 高句麗 樂工人의 帶는 紫羅帶였다.
4. 新羅와 高句麗 樂工人의 신발은 두 나라 모두 皮鞋였는데 新羅 樂工人의 것은 烏皮鞋였고 高句麗 樂工人의 것은 赤皮鞋로 두나라 樂工人의 신발의 차이는 가죽색깔이 각기 다른 것에 있었다. 高句麗의 舞者가 烏皮靴를 신고 있는데 이것은 新羅 樂工人 卽 歌舞人의 烏皮鞋와 同一한 色의 皮靴였다. 百濟의 舞者는 皮履를 신고 있다. 通典의 기록에는 없으나 高句麗 舞俑塚의 舞者는 素皮履와 素皮鞋를 신고 있어서 通典의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삼국의 樂工人과 舞者의 服飾은 三國 모두 中國의 服飾에서 많은 영감과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參考文獻

嘉禮都監 儀軌
廣解 大玉篇

8) 五洲衍文長箋 散稿 卷四十五 笠制辨證說.

-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서울:韓國文化研究院, 1963.
-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亞細亞出版社, 1979.
- 金富弼, 三國史記, 民族文化推進會刊.
- 金富弼, 金鍾權 譯, 三國史記, 서울:大洋書籍, 1972.
- 김부식,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옮김, 北譯 三國史記, 서울:신서원, 1959.
- 김부식,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서울:음유문화사 1983. 1997 개정판.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三國史記, 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金英淑 編, 韓國服飾史辭典, 서울:民文庫, 1988.
- 尙方定例
-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0.
- 李喜煥 纂, 物譜.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白楊堂, 1947.
-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 品”, 韓國史學論叢, 1960, pp. 95-104.
-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기념사업회, 1974.
- 李宰, 四禮便覽.
- 才物譜.
- 홍매경, 홍무경, 조선의복, 혼안제도의 연구, 서울, 乙酉文化社, 1948.
- 康熙字典
- 高承, 事物紀原集類. 台北:新興書局 中華民國 58年.
- 王宇清, 韓國服裝史綱, 台北:中華大典編印會, 1969.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 1964.
-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人 妝飾, 台北:南天書局, 1988.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丹青, 1983.
- 中文大辭典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服飾, 台北: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中華民國 75年.
- 張其昀 監修, 程光裕, 徐聖謨 主編, 中國歷史 地圖 上下, 台北:中國文化大學 出版部, 1980.
- 太平御覽, 台灣:商務印書館.
-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東京:東洋文庫, 昭和 45.
- 朝鮮總督府 中樞院, 高麗以前의 風俗關係 資料 據要,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6年.